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소외계층문화순회 지역예술가참여순회사업
- 회의일시 : 2017. 9. 27(수) 10:00~21: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지역예술가참여 순회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강화 및 지역문화예술향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활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신나는 예술여행’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예술과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구현하는 단체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심사 기준을 삼았습니다.

지난 8월 28~9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수도권에서 271개 단체(전통예술, 무용, 예술일반, 음악, 연극), 5개 지방 권역에서 218개(강원권 17개, 전라권 36개, 489개 단체가 참여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하는 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신청 작품들 역시 소외계층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이 많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신나는 예술여행의 사업취지에 맞춰 프로그램의 충실성(30%),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20%),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참신성(20%), 해당지역 및 수혜자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30%) 등을 고려해 지원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신청단체들 가운데 교도소, 소방서, 전방지역, 도서지역, 특수학교, 작은 도서관, 헌책방 등 특정 계층과 장소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관객들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프로그램들에 주목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프로그램은 미래의 문화향유자들을 길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 복지의 일환인 이번 사업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객참여형의 경우 관객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한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원 단체나 대상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조건일 경우 소규모 공연에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장르의 경우 관객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자극적이거나 공연의 질을 저하시키는 내용과 형식의 작품과 예술가의 실험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감을 주지 못하는 작품들은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에선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신청건수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489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1건이 수도권에서 출품돼 지역과의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의 향유와 지역문화해소격차를 위한 이번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초 권역별로 선정규모를 지원신청공고에 안내, 권역별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용과 연극의 경우 지역의 예술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음악의 경우 오페라, 클래식, 대중음악 등 특정 분야의 작품들이 많은 반면 가곡과 같은 일부 장르는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의 경우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프로그램을 급조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으로서 제언을 한다면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예술가참여순회사업에는 보다 많은 지역의 단체나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원금액도 확충해 수혜의 기회를 늘렸으면 합니다.

아울러 내년 공모에선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이나 스토리, 설화들을 스토리텔링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문화소외계층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들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소외계층문화순회 지역예술가참여순회사업 심의위원 일동